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3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소사신앙촌·첫째울타리
1) 소사신앙촌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3) 소사신앙촌 생활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가는 신앙촌사람들
5) 노구산 집회 기우계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8) 영모님의 재판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소사신앙촌의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의 생활 그 자체였다. 모든 입주자들은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는 이들의 일상생활은 그 사기와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이와 같이 꿈 같은 천국생활이 지속되면서 모두들 자기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이대로 열심히 달려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님을 영접하여 왕의 반열에 틀림없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일까? 마귀는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임을 알고 작심하고 땅가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일까? 검찰에서 신앙촌 비리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연일 수사검사는 많은 수사요원들을 이끌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전 신문은 일제히 '박장로의 천년왕국 신앙촌의 비리수사' 라는 제목하에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였다. "박장로의 천년왕국은 무너지는 가" 라고 대서특필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사를 써왔다. 그리고 이승성신

사진을 기사화하여 조작하여 미혹을 시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적당히 만든 사진을 같이 실으면서 조작이 틀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기사까지 써왔다. 이와 같은 조작된 사진으로 헌금을 거두었으니 사기죄는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기기도 썼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 암매장하고, 또 혼음하여 장모도 범했고 형수도 범했다고 기사를 써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영모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전 전도관식구들은 의기소침이 되어 추이가 어찌될 것인가 하고 초조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영모님은 단에 서시면 더욱 강력한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나를 잡아가들 사람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 교인들은 다들 영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 영모님의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세상관세 잡은 자들의 악의적인 모략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였다. 영모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인들을 안심시키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가족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서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고 누차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를 이 시끄러운 때에 어디 가서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오실 모양이라고 생각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이 구속되어 형무소에 혼자 수감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교인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영모님은 1958년 12월 27일 구속되었다. 전 교인들은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허탈함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활기찼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어제는 죽 늘어져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박태선 정로님이 안찰하시는 모습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여기서 영모님이 구속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승만박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자유당 정권 때이다. 그때는 세상이 다 알다시피 대통령인 이박사보다 이 모씨와 박 모씨 부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시절이다. 더욱이 남편인 이씨보다 그의 부인 박모여사의 권력이 더 절대적이었다. 당시는 이 두 부부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었다고들 말한다. 부인 박 모의 말 한 마디면 누구든 거역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무서운 여인인 박 모씨를 당시 무임소장관인 박 모씨와 중앙대 총장 임 모씨 등이 영모님께 데려왔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모여사도 영모님이 놀라운 은혜자란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호기심이 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온 것이다. 박모여사는 당시 감리교 장로였다. 소사신앙촌 내에 있는 영모님 저택으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서로 인사소개가 있을 후 영모님은 "안찰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박 모여사의 의사를 물었다. 박 모여사도 박장로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소문을 들은 터라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찰을 받게 되었다. 영모님은 "박여사님, 안찰을 처음 받게 되면 매우 고통이 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안찰을 시작하였다. 손을 눈에 대자 박모는 고통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 아닌 것이다. 결국 체면을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모님 손이 몸으로 내려왔다. 손을 대자 그야말로 몸을 뒤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숨어버려 가는 것 같이 아우성을 친다. 영모님은 안찰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사는 16세부터 음란죄를 지으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다. 안찰하시는 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바짝 긴장을 하였다. 엄청난 이 말씀이 박 모여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바짝 긴장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인 영모님은 상관하지 않고 "앞으

로 이 죄를 끊지 않고 계속 지으시면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안찰을 더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안찰을 끝내셨다. 다들 박모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다. 박 모는 일어나더니 얼굴이 빨갳게 된 상에서 (당시는 너무 고통스런 안찰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갳게 될 수도 있었다) 인사를 하는듯 마는듯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다. 사실 천하의 박모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였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내용이었으나 하나님보다도 잔뜩 더 높아져 있는 박모 여사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당했다는 감정이 더 앞섰을 것이다. 다들 은근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박모여사는 실제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즉시로 박 장로를 어떻게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음란죄를 지으므로 세례요한이 이를 강하게 꾸짖을 하니 이에 헤로디아의 화가 나서 헤롯왕을 꼬시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오게 했다는 일화가 써여 있다. (마14:1-12 참조)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영모님이 당대의 권력자 박모 여인의 음란을 나무래시니 이에 앙심을 품은 그 여인은 영모님을 시해(弒害)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영모님은 1958년 12월 27일 구속까지 가게 된 것이다.

8) 영모님의 재판

사실 영모님의 구속은 위에서 잠깐 설명을 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 미리 어떻게 할 것을 결정 해놓고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하고 도합 7-8명이나 되는 쟁쟁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대항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는 이모 검사이고 판사는 이모 판사였다. 많은 죄명으로 구속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은 헌금사기 하나로 몰고 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이승성신을 속임수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속여서 허황된 마음을 먹게 하여 많은 헌금을 거두어들였으니 사기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재판장은 이 성화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이 성화사진을 조작된 가짜로 몰고 가려는 것을 눈치챈 영모님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사실 영모님의 구속은 위에서 잠깐 설명을 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 미리 어떻게 할 것을 결정 해놓고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하고 도합 7-8명이나 되는 쟁쟁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대항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는 이모 검사이고 판사는 이모 판사였다. 많은 죄명으로 구속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은 헌금사기 하나로 몰고 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이승성신을 속임수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속여서 허황된 마음을 먹게 하여 많은 헌금을 거두어들였으니 사기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재판장은 이 성화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이 성화사진을 조작된 가짜로 몰고 가려는 것을 눈치챈 영모님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가)가짜 이승은혜사진으로 사기를 쳤다

피고석에 앉아 있던 영모님은 벌떡 일어나서 "재판장님! 한가지들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영모님의 말씀을 들은 재판장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영모님은 "이 성화사진이 의심스러우시면 이 박장로를 쇠고랑을 채운 채로 남산공원에 서라도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찬송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인 많은 기자 양반들과 검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사진을 찍게 해주셔서 이승은혜가 사진에 찍혀 나오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 중에 이승사진이 찍혀 나오지 않으면 나 박장로를 사형을 시키시고 만일 사진에 이승은혜가 찍혀 나오면 나 박장로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시오" 라고 긴급제안을 하였다.*

百姓之不治也

백성지부치야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도덕경 75장 해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생명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 이 생명을 아름답게 길어갈이 꽃 피우는 것이 삶이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체는 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하는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도의 시작이요, 종교의 시작이요, 학문의 시작이요, 철학의 시작인 것이다. 이것이 모든 생명체, 그 가운데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숙제이자 본능의 발로이기도 한 것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성현의 가르침도, 그리고 본 노자의 도덕경 속에 감추어진 진수(眞髓)도, 다 그러한 숙원(宿願)과 이념(理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생의 본능을 버뜨어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파렴치함이 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인면수심(人面獸心)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인간으로 비하하는 고사가 생겨났을까. 인물과 도덕에 있어서 생존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시대를 불문하고 이 생존권을 거스르거나 막고 억압하는 자는 어김없이 폐가 망신하였음을 역사는 준엄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망각의 존재랄까, 아니면 너무나도 무지한 존재랄까, 또는 똑같은 패륜과

부도덕을 되풀이하여 저지르고 있다. 모두가 이러한 기본 생존권을 추구하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허무인으로 타인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자신만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려는 암적(癌的)인 존재가 있는 것이다. 암(癌)이란 것은 몸 안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만이 독불장군 식으로 살아가려는 세포를 말한다. 인간 중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많이 있다. 몸 전체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살려는 암은 그로 인하여 그 생명의 주체와 더불어 죽어 죽어 사라지듯,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후회와 탄식으로 백성들의 공분과 원망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진다.

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이 살기 위한 부도덕하고 반생명적인 처사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시대의 비극이요, 역사의 역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지도자나 사회의 어른은 엄밀히 따지면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주어지고, 백성들의 피와 생명의 같은 세금을 걷어서 국고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도자가 그러한 직분과 공적 자금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

용하라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다. 옛말에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다. 하늘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귀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지도자는 타인으로부터 추앙받고 존중 받는 명예와 직분을 부여받는 대신에 백성들을 하늘처럼 섬기려는 사명감과 의무가 주어지므로 조화와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다. 백성이 하늘이라는 말은 듣기 좋다고 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뉘 어려운 것이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굶주리지 않는지 이모양 저모양으로 살피고 또 살피야 하는 자리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대접 받는 길이자, 또한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안녕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가 역천자(逆天者)요, 또한 망국(亡國)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이다. 도(道)라는 것이 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려고 무섭도록 인내하고 정진

하는 것이 도인 것이다.
人之飢也(인지기야):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以其取食稅之多也(이기취식세지다야): 세금으로 많이 빼앗아 먹기 때문이요.
是以飢(사이기):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이요
百姓之不治也(백성지부치야):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以其上有以爲也(이기상유이위지): 지도자가(백성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요
是以不治(사이불치):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외다.
民之輕死(민지경사): 사람들이 가벼이 죽는 것은
以其求生之厚也(이기구생지후야): 그러한 삶을 정치지도자가 두텁게 추구하고 때문이요.
是以輕死(사이경사): 그래서 천하게 죽는 것이외다.
夫唯無以生爲者(부유무이생위자): 대저 오직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是賢貴生(시현귀생): 그것이 바로 현명하고 고귀한 삶이요.*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이요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02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